정무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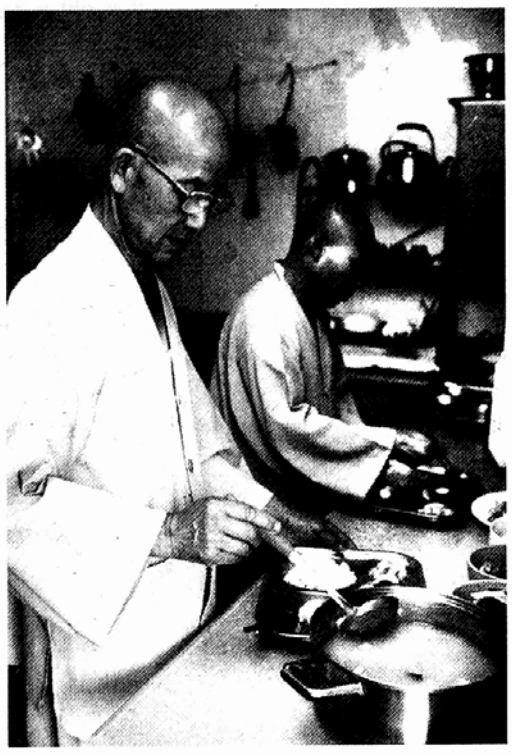
늘 맨발…백장청규 실천

사찰수련회 처음 실시



1931년 전북 임피에서 태어난 정무(正無)스님은 58년 전북대학교 농과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58년 은적사에서 전강선사를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62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스님을 법사로 대교과를 수료하고 65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63년 김제 부흥사에서 전강선사를 조실로 5하안거를 성만했으며 71~83년 수원 용주사 주지, 84년 신흥사 주지, 영월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안성 석남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스님은 늘 맨발 차림이며 하루에도 30번 이상 손을 씻을 정도로 흙속에 묻혀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백장청규를 실천하고 있다.

스님은 수련회 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1968년, 주석하고 있던 영주 포교당에서 신도수련회를 처음 열었고 청년불자들인 대학생 불교회 수련회도 처음 시작하는 등 수련회 개최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어느 사찰에 주석하고 계시든지 신도들을 위한 수련회를 직접 마련해 신도들을 교육하고, 수련회를 열겠다고 하는 단체에는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개방하고 있다.



◇수행자의 생활이 편할수록 구도의 길은 멀어진다고 말하는 스님은 공양도 직접 식판에 담아 대중들과 한 상에서 하신다.

"서는 제 마음대로 살아요. 업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업을 자기가 조장해 가며 삽니다. 그러나 절에만 온다고, 유명한 큰 스님들 좇아다닌다고 진정한 불자가 아니예요. 요즘은 스님들이나 신도들이나 힘들게 수행을 하지 않으려 해요. 어떻게 하면 업도 쉽게 소멸할까 궁리나 피우고, 부처되는 길도 지름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불교는 자기가 닦은 만큼 업을 소멸하는 거지,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님의 일상은 단조로우면서도 빈틈이 없다. 새벽 4시 예불을 봉행하고 5시에서 1시간동안 참선삼매에 든다. 6시에는 대중 모두가 도량을 청소하며 자신의 마음에 끼어있는 때를 씻는다. 7시에는 아침공양, 12시 점심공양 때까지 사중의 일을 보거나 공부에 몰두한다. 점심공양이 끝나면 또 청소를 하고 5시까지 가람 정비와 채소를 가꾸는 울력에 몰두한다. 6시 저녁공양 7시 저녁예불, 이후는 현재 석남사에 와 있는 행자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 스님은 행자를 자상하면서도 엄격하게 가르치시는 것으로 유명하다.

행자나 상좌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초발심때의 그 간절한 마음을 지속시키고 하심과 인욕을 평생 간직해야 한다는 것. 또 수행을 겉으로 하지 말라고 늘 주의를 준다. 모든 일을 배울 때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발심출가 한다는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지요. 발심했다 하면 어디서든지도 닦을 수 있어요. 발심이라는 말 자체가 도 닦으려는 마음을 100% 냈다는 것이지요. 발심했을 때의 마음을 지속한다면 어떠한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도를 닦을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환경을 탓해서는 안되지요. 요즘 보면 출가자나 재가자나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노후 걱정을 하질 않나, 무슨 걱정거리가 그리도 많은지…"

'양다리 걸치는'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그것은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단언하신다. 초발심 때는 구도심이 견고했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됐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엉터리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 철저한 초발심
> 자연스럽게 불퇴전
> '백척간두 서있다'
> 항상 명심하며 공부

발심이 안되어 있다는 거지, 철저하게 발심이 되어있는 사람은 자연히 불퇴전(不退轉)이 된다.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간절함으로 해야 하며, 발심이 약해지면 부처님의 삶을 생각하라고 하신다.

상좌인 세영스님(여주 신륵사 주지)은 "은사 스님은 수행자 본분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면서 "상좌들에게도 포교를 늘 강조하시고 포교야 말로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본분사이니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하신다"는 것.

정무스님은 현재 석남사 정화(가람을 깨끗이 정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다)에 몰두하고 계신다. 스레트 조립식 건물 8동중 해우소 등 두 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했다. 서운산에 둘러싸인 가람, 석남사 자체가 아담한 산사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스레트 조립식 건물은 절에 오는 신도들에게 전혀 환희심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찾아오는 사람의 다음을 편하고 즐겁게 '환희심이 나는 사찰'을 만들어가는 불사에 몰두하고 있는 스님은 그렇다고 그 불사에 돈을 많이 들이고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일을 상좌와 함께 직접 한다. 그것을 스님은 '직영(直營)'이라고 표현하신다. 불사비를 신도들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기에 급한 마음도 없고 화려하게 해야겠다는 마음도 없다. 매일 매일 정성을 다해 할 뿐이다.

"요즘 우리사회를 보면 정말 큰 일이예요. 인간성이 상실되고 가치관이 전도되어 이기주의와 갈등, 방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국민 전체가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이기나 일시적인 미봉책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파괴되어 가기 때문이예요. 가정의 파괴는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청정한 본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왜 생기고 존재하는 가에 대한 근원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겠다는 풍조가 널리 퍼졌을 때 가능합니다."

스님은 "나의 생명을 있게 한 일체 중생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효"라고 말한다. 그 은혜의 대상을 부모로 한정하기 보다는 일체 중생을 부모로 보고 효순공양하는 것이라며 다섯가지 은혜를 알고 보은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즉 국가, 스승, 부모, 동포, 그리고 자연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

"부모님은혜는 열가지가 있어요. 〈부모은중경〉에 자세히 나오지요. 국가의 은혜는 역사와 문화라고 보면 되지요. 한 민족이 됐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못 삽니다. 서로서로 주고받고 도와주어야 하지요. 또 인류는 한시라도 자연의 혜택을 떠나서 살수가 없지요. 이 다섯가지는 각기 떨어져 있지 않고 연관이 있는 하나의 고리인데 하나만 빠져도 사람은 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다섯가지 은혜를 아는 사람의 인생은 즐겁고 봉사와 자비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집니다."

어느 법석에서나 이렇게 '효' 설법을 하시는 스님은 요즘 조그만 호신카드 1만장을 인쇄해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고 계신다. 부석사 아미타부처님이 앞면에, 뒷면에는 정명의 길이라 하여 팔정도의 하나인 올바른 생활방법에 대해 일러주고 있다.

첫째는 깨끗한 공기, 일광, 생수 밑에서 산다. 둘째, 본성을 해롭게 하는 직업은 버린다. 셋째, 시간과 돈은 일의 가치 순으로 쓴다. 넷째, 음식은 합리적인 자연식으로 한다. 다섯째, 매일 적합한 노동이나 운동을 한다. 여섯째, 은혜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된다.

정무 스님은 누구나 다섯가지 은혜를 알고 감사해 하며 갚고자 노력하고 여섯가지 정명(正命)의 길을 지키며 살기를 희망하셨다.

글=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혜조스님

혜조스님은 성이 구씨이다. 그래서 우스개 말로 '119스님'이라고 한다. '구해조'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이다. 혜조스님은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뜨거운 피와 절절한 가슴으로 사는 스님일 것이다. 중앙승가대는 80년대 불교권 내에서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 투쟁을 가장 극렬하게 한 곳이다. 당시 혜조스님은 중앙승가대에 재학하면서 민주화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12·12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5공 세력은 5·18 광주민주화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해 10월에는 불순세력과 부패세력 색출이라는 미명하에 불교계를 무참하게 짓밟으며 교계 지도자들을 무더기로 삼청교육대에 보냈다. 감히 기성 승단이 숨도 크게 못 쉴 때 중앙승가대의 학인과 동문들은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 그들과 맞서 온몸으로 투쟁했다. 최루탄을 소낙비 퍼붓듯 쏘아도 도망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다. 2만명 고대생들이 하는 데모보다 2백명 중앙승가대 스님들이 하는 데모가 더 위협적이라고 하던 당시 성북경찰서 관계자들의 말을 통해 보더라도 그 때의 데모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혜조스님이 그렇다고 맨날 데모만 하고 다녔다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인식하는 사회와 그가 인식하는 역사와 문화가 그로 하여금 산속에 은거하며 안빈낙도를 즐겨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어느 해인가 강화도 전등사에서 기도를 함께 한 적이 있다. 그가 하는 기도는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니었다. 피를 토하듯 절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에서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는 한을 느끼게 했다. 그것이 그가 업명이처럼 안고 있는 애민중생(愛愍衆生)하는 모습이었다. 한번은 혜조스님네 절에 갔더니 보리 꺼스레기 같이 앙상한 눈먼 고양이 새끼와 한쪽 다리가 없는 비루먹은 강아지를 돌보고 있었다. 어디에서 이런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중생들을 입양해 왔느냐고 물었더니 길을 가다가 보니 누가 버렸는지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모습이 하도 안스러워서 주워왔노라고 했다. 잘 생기고 보기 좋은 애들은 아무라도 탐을 내지만 이 애들은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지금 이들을 거두어주지 않으면 구더기 밥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면서 오늘 내가 이들을 만난 것을 보아 전생에 이들에게 진 빚이 많은가 보다며 밝게 웃었다. 이 천애의 장애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민의 마음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민중들의 애환과 절규를 얼마나 통렬한 마음으로 함께 고뇌하는지 또한 느낄 수 있었다.

평소 그는 작은 일일지라도 건성으로 대하지 않고 매우 진지하다. 그 사안이 생존권과 관계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검증하며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보다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쓴다. 94년 개혁종단의 출범과 더불어 중앙승가대학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김포로 학사이전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 그에 따른 제반 문제에 관한 방법 모색을 위하여 당시 학교 기획실장이던 금정스님과 함께 며칠 밤낮동안 격론을 한 적이 많았다. 혜조스님이 그때 보여주었던 진지함과 논리성에 대하여는 다들 두 손을 들고는 했다.

80년대 후반, 스님과 함께 2년여간 경제사상사와 정치사, 문화사 등을 공부한 적이 있었다. 공부에 대한 열정과 논리적이고 거침없는 표현의 지는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을 매번 놀라게 했다.

종교가 중생들의 귀의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중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부끄럼없이 하는 것은 오탁악세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과 같다, 현실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민중들이 얼마



나 고달픈 삶을 사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 것을 쉬운 말로 자기가 지은 업이니까 자기가 받는다는 식의 단순사고는 종교인으로서뿐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마저도 없다고 항상 혜조스님은 역설한다.

민주화 투쟁과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운동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다, 이 시대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에서부터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민주화는 연기적 공생관계를 말한다며 베푸는 사회와 나누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민주사회라고 스님은 말하곤 한다.

한편 스님은 매우 섬세하고 치밀한 자기사유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당 살풀이춤의 인간문화재였던 故 김숙자 선생의 전수생이다. 김선생이 생전에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도 혜조스님이 예인으로서의 끼와 좋은 재능을 타고났음에도 스님이기 때문에 전념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가 살풀이춤을 절절한 심정으로 출 수 있는 것도 중생들의 고뇌와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애민중생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이 바라는 사회, 염원하는 세계는 바로 불국정토의 세계이다. ▩ 정취암 한주

無病長壽
무병장수를 기원하는「윤년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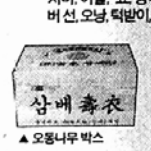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윤년수의는 윤달에 만들어진 수의입니다.

품 명	백화점가격	불자님가격	특 별 혜 택
삼베 二品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一品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特品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청구 세트증정
수직 特品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청구 세트증정
안동포 七세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청구 세트증정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장매,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모, 행전, 떡받이, 면포 (총 3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장매, 베개, 천실띠, 면모, 악수, 버선, 오낭, 떡받이, 면포 (총 18종)


▲ 오동나무 박스


▲ 향나무 박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 육임래정비법 -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출설법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몰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재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단지의 시간만 펼쳐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관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점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집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알아 버린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따부러지게 알아 맞혀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客人의 사정을 探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한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점하를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書·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流布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무속인·스님·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1960페이지·미색용지·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리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임실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리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된 명성과 하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람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자자인 蔵卜子 晩果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래식물원에서 산성쪽으로 100M쯤의 「기원정사」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승진사·구재사·시험사·구직사·결혼사·임신사·가정사·이주사·소송사·질병사·매매사·여행사·도난사·심인사·상면사·채용사·투자사·승부사·가격사·농경사·묘지사·기후사